

# 경제주평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4년 경제성장률, 0.5%p 상향조정한 2.7%

# 목 차

##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4년 경제성장률, 0.5%p 상향조정한 2.7%

Executive Summary .....	i
1. 대외 경제 환경 변화 .....	1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 .....	9
3. 한국 경제 전망 .....	17
4. 시사점 .....	2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4년 경제성장률, 0.5%p 상향조정한 2.7%

#### ■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의 배경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지난 전망치 2.2%(‘24년 1월 전망 시점)에서 2.7%로 0.5%p 상향조정한다. 그 근거는 우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견조한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해외시장 호황 - 내수시장 불황’형의 무역·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경기 전환의 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경기 국면이 회복 기조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의 성장 구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까지는 수출·내수의 경기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재고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했던 부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수(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회복 속도의 가속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4년 한국 경제가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은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바,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발생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다시 2%대 초반의 경제 성장 경로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1.4%	⇒	2.7%
	(2023)		(2024)

한국 경제는 2023년 복합 불황(수출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국면에서 2024년에는 수출 주도의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24년의 기본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의 주된 힘은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여기에 수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강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른 경제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수출에서 내수로의 낙수효과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1.4%)보다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2% 내외)을 넘어서는 2.7%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치(현대경제연구원 1월 전망 2.2%)에서 0.5%p 상향조정된 것이다. 한편, 2023년의 경제성장률 상고하저 추세의 영향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8%,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6%로 예상된다.

## ② 내수

<b>민간소비증가율</b>	<b>1.8%</b>	⇨	<b>1.7%</b>
	(2023)		(2024)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가계의 소비 심리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반적인 소비 여건을 보면,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실물 경기 상승 등으로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 수준,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시장의 특성으로 실질구매력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4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023년(1.8%) 수준과 비슷한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3년의 민간소비 추세상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 하반기 민간소비증가율은 2.1%로 예상된다.

<b>설비투자증가율</b>	<b>1.1%</b>	⇨	<b>3.8%</b>
	(2023)		(2024)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 경기 호조에 따른 설비 확충 수요, 중장기 DT(디지털 전환) 및 GT(그린 전환) 투자 수요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심리의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자본 조달 비용의 급증, 자본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여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해야 하는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T(AI, 데이터센터 등), GT(신재생에너지인프라 등) 등에 대한 신산업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023년(1.1%)보다 높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의 설비투자 추세상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 하반기에는 6.7%로 예상된다.

<b>건설투자증가율</b>	<b>1.5%</b>	⇨	<b>0.1%</b>
	(2023)		(2024)

장기화된 건설수주 침체가 건설기성(국민계정의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투자가 미약한 반동을 보일 가

능성을 기대해 본다. 부문별로 토목(SOC) 분야의 경우 2024년 정부 예산에서의 재정투자 규모가 26.4조 원으로 2023년 25.0조 원 대비 5.8% 증가하였기에 일정 수준의 업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건설투자의 75%를 차지하는 건축(건물건설 분야)의 경우,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비용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공사비 및 금융조달비용 급증에 따른 착공 급감으로, 누적된 대기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미약하나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건설투자증가율은 2023년(1.5%)보다 낮은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상반기 건설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Delta 0.5\%$ 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Delta 7.5\%$	⇨	9.3%
	(2023)		(2024)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교역 활성화의 영향으로 2023년  $\Delta 7.5\%$ 에서 2024년 9.3%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전년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 선도 품목인 반도체와 다른 품목 간의 수출 경기 회복에 시차가 존재하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9.4%, 하반기 9.3%로 평탄한 흐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경기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대외 여건 전개 방향성에 따라 회복력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증가율	$\Delta 12.1\%$	⇨	0.8%
	(2023)		(2024)

수입증가율은 전반적인 경기 활력이 높아지면서 2023년  $\Delta 12.1\%$ 에서 2024년 0.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Delta 6.0\%$ , 하반기 8.2%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하반기 원자재 가격이 재상승할 경우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수지	$\Delta 103$ 억 달러	⇨	434억 달러
	(2023)		(2024)

수출 경기의 회복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빨라, 무역수지는 2023년  $\Delta 103$ 억 달러의 적자에서 2024년 434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2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 및 설비투자용 원부자재 수입이 다소 증가하면서 20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반기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높아질 경우 수입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b>경상수지</b>	<b>355억 달러</b>	⇨	<b>610억 달러</b>
	(2023)		(2024)

경상수지는 2023년 355억 달러에서 2024년 610억 달러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3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300억 달러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되지만, 재화 교역에서 무역수지의 증가 폭이 확대되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④ 물가 및 고용

<b>소비자물가상승률</b>	<b>3.6%</b>	⇨	<b>2.7%</b>
	(2023)		(2024)

상반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들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특별한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수입물가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망도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적으로 물가 수준에 대한 기저효과(23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고하저)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 심리(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고물가가 빠르게 잡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2.7%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4년 상반기에는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2%대 전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실업률</b>	<b>2.7%</b>	⇨	<b>2.8%</b>
	(2023)		(2024)

실업률은 2023년 2.7%에서 2024년 2.8%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에도 고용 지표의 경기 후행성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실물 경기의 회복 국면 속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위축을 보전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 군에 진입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지표의 계절적 특성의 영향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3.1%가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증감** 33만명 ⇨ 23만명  
(2023) (2024)

신규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감)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26만 명, 하반기에는 19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취업자수의 감소는 실물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산업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어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4년 6월) >

구 분		2022	2023			2024(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7	1.0	1.7	1.4	2.8	2.6	2.7
	민간소비 (%)	4.2	3.1	0.5	1.8	1.2	2.1	1.7
	건설투자 (%)	△3.5	1.7	1.4	1.5	△0.5	0.7	0.1
	설비투자 (%)	△0.3	4.2	△2.0	1.1	1.0	6.7	3.8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58	11	343	355	310	300	610
	무역수지 (억 달러)	△478	△263	159	△103	226	208	434
	수출증가율 (%)	6.1	△12.4	△2.4	△7.5	9.4	9.3	9.3
	수입증가율 (%)	18.9	△7.8	△16.4	△12.1	△6.0	8.2	0.8
소비자물가상승률 (%)		5.1	3.9	3.3	3.6	3.0	2.4	2.7
실업률 (%)		2.9	3.0	2.5	2.7	3.1	2.4	2.8
취업자수 증감 (만 명)		82	37	28	33	26	19	23

## ■ 시사점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를 강화하여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벗(pivot, 금리 인하) 이전의 기간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활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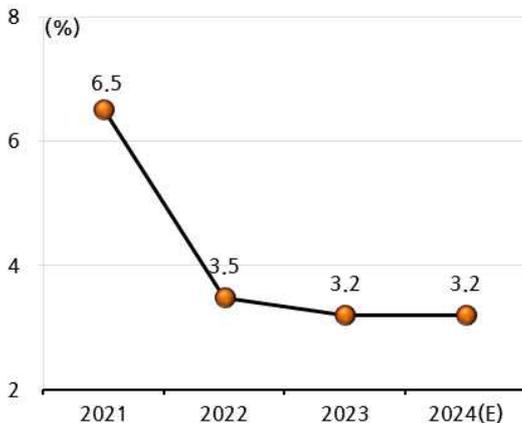
## 1. 대외 경제 환경 변화

### ① 세계 경제 전망

#### ○ (세계 경제) 성장 속도의 가속은 없으나 교역 환경의 개선세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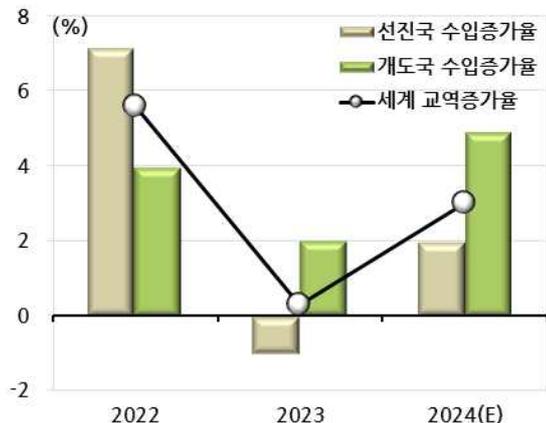
- 2024년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역증가율은 2023년의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크게 반등할 전망
  - IMF 4월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OECD 5월 전망도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인 3.1%를 예상함
- 한편, 2024년 국제교역 환경은 2023년의 침체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수입 수요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수입 수요가 모두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세계 교역증가율의 상승이 예상됨
  - IMF 4월 전망 통계 기준으로 교역증가율은 2023년 0.3%에서 2024년 3.0%로, OECD 5월 전망 기준으로도 1.0%에서 2.3%로 상승함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 국제 교역증가율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 (선진국)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이 침체에서 벗어나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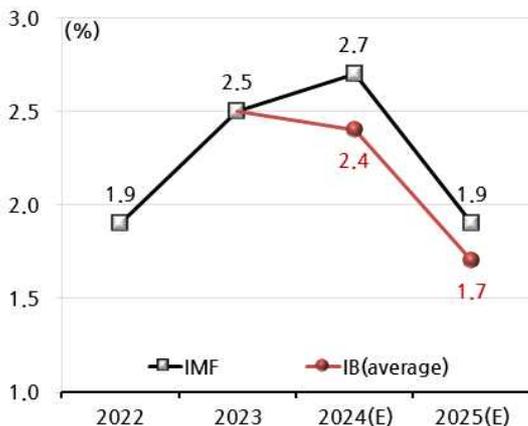
- (미국) 잠재성장률 전후의 경제 성장 속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민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면서 경기 방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IMF는 최근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 2.5%보다 높은 2.7%로 예측하였는데, IB들은 평균 2.4%로 소폭 하락을 전망함
- 한편, IMF나 IB나 모두 2025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추세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경기 고점이 형성되었거나 조만간 형성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임을 시사함

- (유로존) 전년도 저성장애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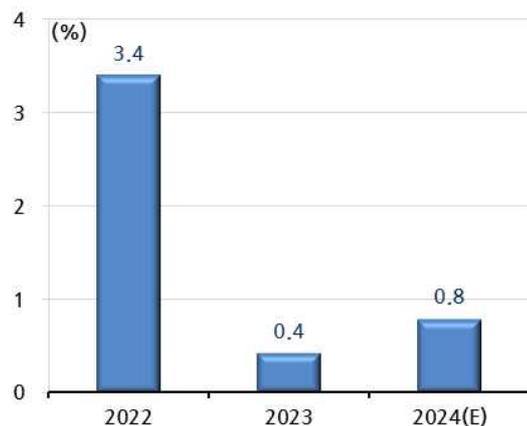
- 2023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0.4%에 그침에 따라, 2024년은 그 기저효과와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 밖으로 성장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Bloomberg.

< 유로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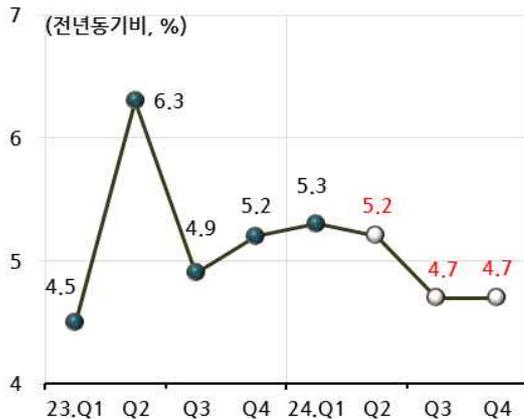
자료: IMF WEO(April 2024).

○ (신흥시장 및 개도국) 2024년 전반적인 신흥시장 경제 상황은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로는 경제 상황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2024년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목표치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정책효과가 미약할 경우 경기 회복 지연 우려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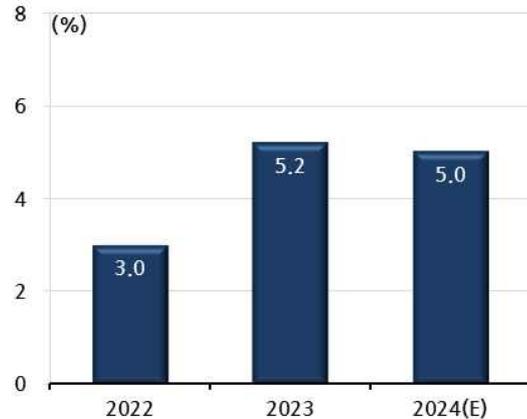
- 정부의 금리 인하,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계 교역 시장의 회복으로 수출 부문이 활력을 가지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내수 경기의 핵심 요인인 주택 시장의 침체가 단기간 내 해결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점증되는 미·중 갈등으로 주력 수출품의 해외 수출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은 여전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음

< 중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주: 2024년은 IMF 부총재의 최근 발언 인용.

- (인도) 고성장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경기의 확장성 제약으로 2023년 8.2%에서 2024년 6~7%대의 성장률로 감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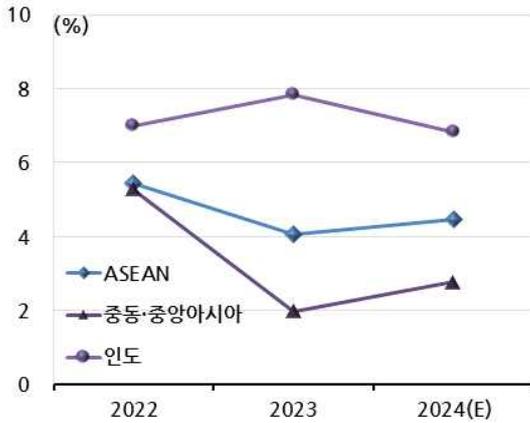
- 2023년 공공투자과 제조업의 총수요 진작으로 경제성장률이 8.2%의 고성장을 기록함

- 2024년에는 재정적자 등에 따른 내수 확장성 제약과 경기사이클 상의 하강 압력 등으로 IMF는 6%대, 인도 정부는 7%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함
- (ASEAN)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로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관광 시장의 활성화로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
  - 중국과 교역 및 투자 의존도가 높은 ASEAN의 경제 구조 특성상, 중국 경제가 5% 내외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중국-ASEAN의 국제 분업 구조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SEAN 국가들의 입장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최근 글로벌 I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에서, 관련 중간재를 생산하는 일부 ASEAN 국가들의 경우 경기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기타 신흥국) 에너지원자재 수출국과 공공투자 확대 노력이 지속 중인 신흥 시장의 경우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정정 불안이 지속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경제권의 상대적 부진이 전망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이 지역 내 산유국 및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경우 2024년 유가 수준이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중남미) 지역 내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의 성장 감속 IMF, 경제성장률, 2023년 2.9% → 2024년 2.2%과, 아르헨티나의 하이퍼인플레이션 IMF, CPI증가율, 2023년 133.5% → 2024년 249.8%에 따른 역성장 IMF, 경제성장률, 2023년  $\Delta$ 1.6% → 2024년  $\Delta$ 2.8%으로 2024년 이 지역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동유럽)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역 내 최대 경제권인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하락 IMF, 경제성장률, 2023년 3.6% → 2024년 3.2%하고, 2위 규모인 터키의 성장률도 낮아지면서 IMF, 경제성장률, 2023년 4.5% → 2024년 3.1% 2024년 경제 상황은 2023

년보다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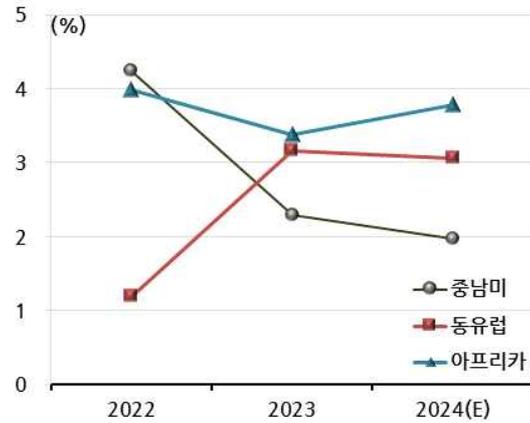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고물가·고금리의 문제가 완화되면서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 기타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E)
세계 경제성장률	△2.7	6.5	3.5	3.2	3.2
선진국	△3.9	5.7	2.6	1.6	1.7
미국	△2.2	5.8	1.9	2.5	2.7
유로지역	△6.1	5.9	3.4	0.4	0.8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1.8	7.0	4.1	4.3	4.2
아시아신흥국	△0.5	7.7	4.4	5.6	5.2
중국	2.2	8.5	3.0	5.2	5.0
인도	△5.8	9.7	7.0	8.2	6.8
ASEAN5	△4.4	4.1	5.5	4.1	4.5
중남미	△7.0	7.3	4.2	2.3	2.0
중동 및 중앙아시아	△2.4	4.5	5.3	2.0	2.8
동유럽	△1.6	7.5	1.2	3.2	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	4.7	4.0	3.4	3.8
세계 교역량증가율	△8.3	11.0	5.6	0.3	3.0

자료: IMF, M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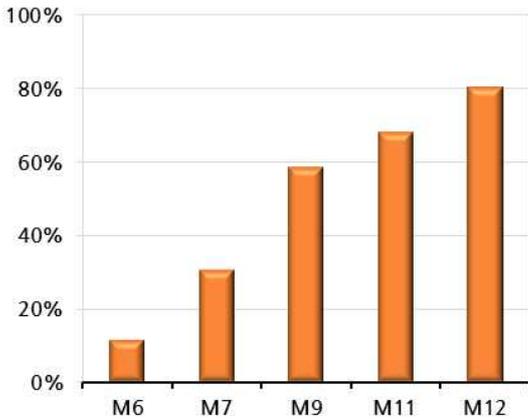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 (금리)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앙은행들이 미 FED보다 먼저 피벗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올해 초 시장에서는 미 FED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FOMC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최근 9월 FOMC에서의 피벗을 예상함에 따라 미 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등 일부 국가에서 미 FED의 피벗에 앞서 선제적 인하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
- 그러나, 경화 硬貨, hard currency국이 아닌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미 FED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정책금리 금리 인하 확률 >



자료: CME FED WATCH.

< IB의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

	2023	2024(E)			
	Q4	Q1	Q2	Q3	Q4
FED (%)	5.50	5.50	5.50	5.25	5.00
BOJ (%)	-0.1	0.1	0.1	0.1	0.2
ECB (%)	4.50	4.50	4.25	3.75	3.75
BOK (%)	3.50	3.50	3.50	3.50	3.25

자료: Bloomberg.

○ (환율)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는 하반기 무렵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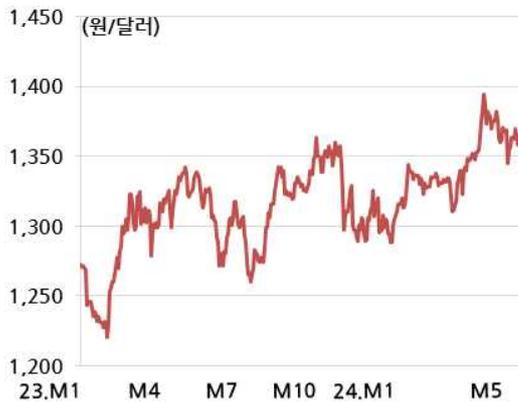
- 3분기 미 FED의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피벗 전후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FED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의 미 FED에 대한 탈동조화, 미국 금융시스템 위기 등의 시장 충격이 있을 경우 달러화 강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음
-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은 4분기 기준 1,300원대 초반이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환경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1,200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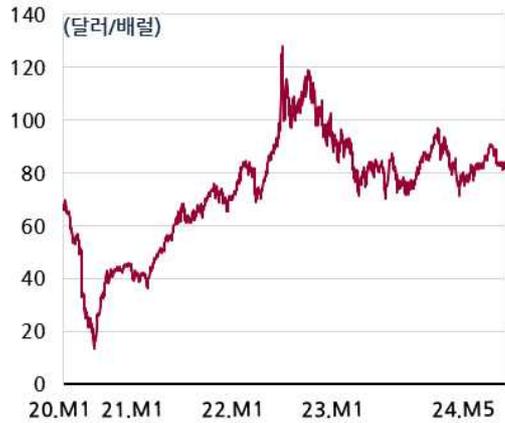
< IB 주요 환율 전망 >

	2023	2024(E)			
	Q4	Q1	Q2	Q3	Q4
달러/유로	1.10	1.08	1.07	1.08	1.09
엔/달러	141	151	153	151	149
위안/달러	7.10	7.22	7.25	7.23	7.18
원/달러	1,291	1,347	1,365	1,350	1,320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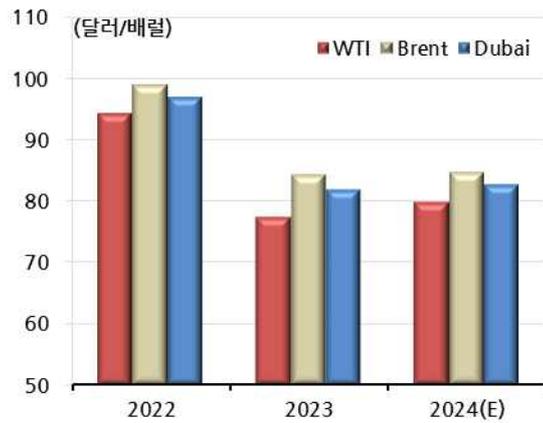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2024년 국제 유가는 2023년 수준 또는 약보합세가 예상되며, 국제 원자재가는 완만한 하향 안정세가 전망
  - 국제 유가 상승 요인은 OPEC+ 감산 조치의 연장 가능성보다는 회원국들의 조치 이행 수준과 세계 경제의 원유 수요 확대 규모에 달려 있다고 판단
    - 국제 유가 하방 리스크 요인은 글로벌 경기 부진, 주요 소비국인 중국 경제 침체 가능성 등임
    -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상과는 달리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이 참전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국제 유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2024년 국제 유가는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가의 주된 결정 요인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일 것임

< 두바이 유가 추이(일간) >



자료: 페트로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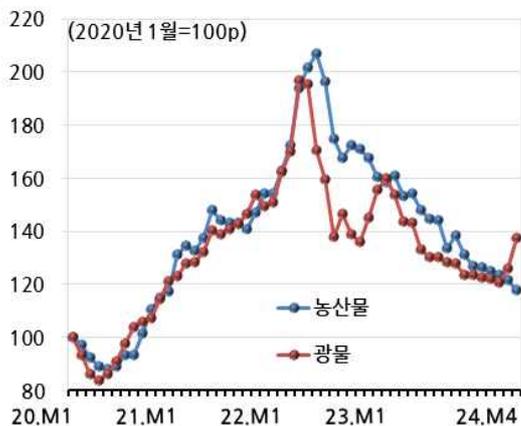
< 국제 유가 전망 >



자료: Bloomberg.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생산 여력이 시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
  - 3월과 4월에 들어 광산물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채굴,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특정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원자재 시장의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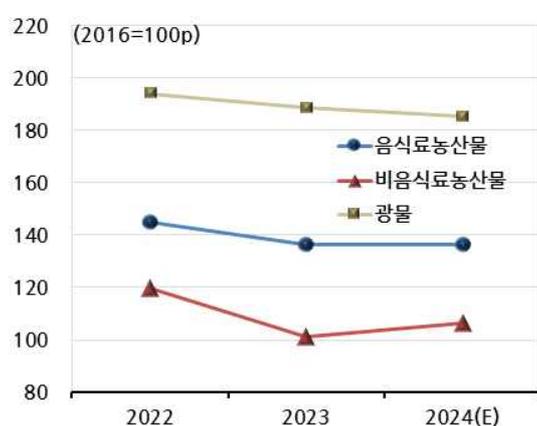
< 농산물 및 광물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를 이용한 지수화.

< 항목별 원자재 가격 지수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4).

##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1)

### ① 경기(경제성장률)

○ (경기 회복 국면 진입) 한국 경제는 2분기 현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낙수 효과를 통해 강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내수 부문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은 전기비 1.3%로 '23년 4분기 0.5%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3.3%를 기록

·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침체 전기비  $\Delta 2.0\%$ 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0.7%, 건설투자 3.3%, 수출 1.8%이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1.3%를 기록함

-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 경기 저점은 아직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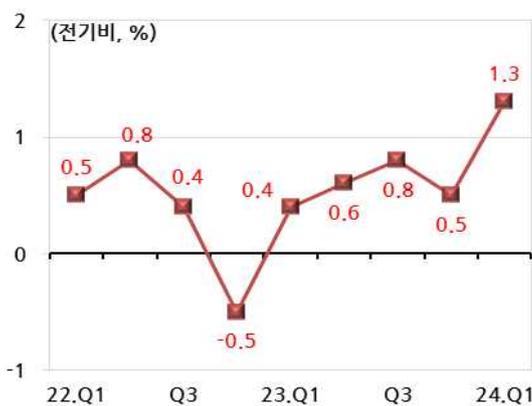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현재 99.4p로 기존 저점인 '23년 12월 및 '24년 3월의 99.6p를 하회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99.7p, 2월 99.9p, 3월 99.6p, 4월 99.4p

·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4월 98.6p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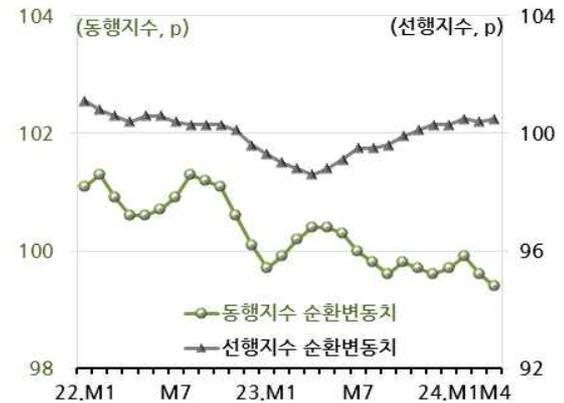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100.3p, 2월 100.5p, 3월 100.4p, 4월 100.5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1) 2장은 현대경제연구원(2024),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2분기)”, 경제주평, 24-08(통권 966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췌함.

② 내수

○ (민간소비) 수출 생산 측면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에 미치는 낙수효과 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월 1.1%의 증가세에서 4월에  $\Delta 1.2\%$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23년 4분기 0.4%, '24년 1분기  $\Delta 0.5\%$ , 2월  $\Delta 3.2\%$ , 3월 1.1%, 4월  $\Delta 1.2\%$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Delta 1.9\%$ , '24년 1분기  $\Delta 2.1\%$ , 2월 0.8%, 3월  $\Delta 3.4\%$ , 4월  $\Delta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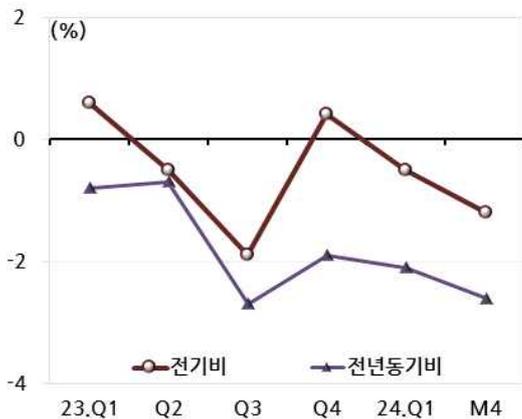
- 소비 항목별로 준내구재, 비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

· 소비 선행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Delta 2.4\%$ , '24년 1분기  $\Delta 2.6\%$ , 2월  $\Delta 8.9\%$ , 3월  $\Delta 5.2\%$ , 4월  $\Delta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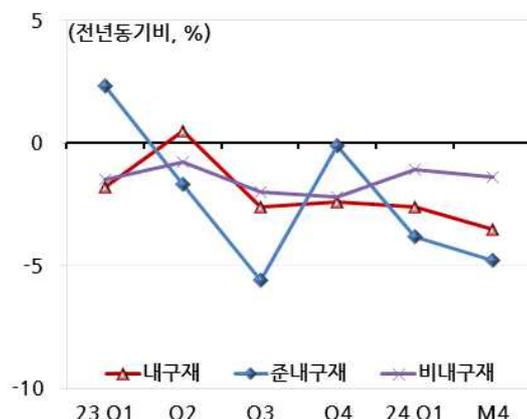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Delta 2.2\%$ , '24년 1분기  $\Delta 1.1\%$ , 2월 7.8%, 3월  $\Delta 1.9\%$ , 4월  $\Delta 1.4\%$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 이외 투자의 침체가 지속

- 4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비 및 전월비 기준 모두 감소

·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3년 4월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 '24년 3월 대비로도 0.2% 감소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8.5%, '24년 1분기 △0.7%, 2월 △0.8%, 3월 △4.5%, 4월 △2.3%

· 다만, 설비투자의 핵심인 4월 ICT투자가 전년동월 기준으로 2.3%의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8.9%, '24년 1분기 △0.5%, 2월 △6.5%, 3월 △4.6%, 4월 2.3%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설비투자의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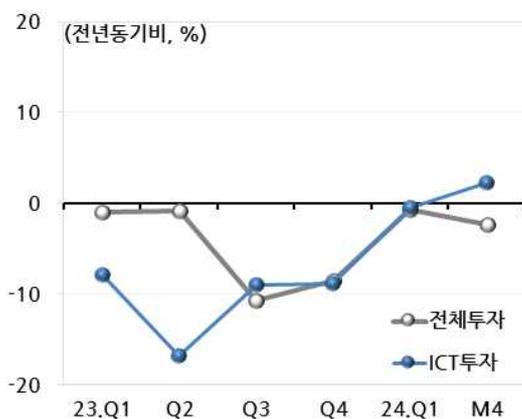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월 △9.6%, 2월 △0.8%, 3월 △4.9%, 4월 △8.7%

· 국내기계수주는 '24년 3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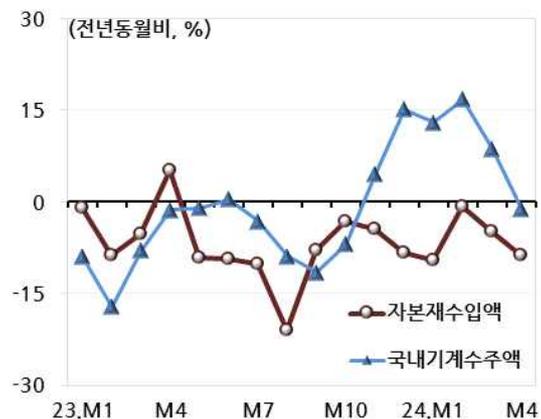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sup>2)</sup>: 1월 7.8%, 2월 21.3%, 3월 △3.1%, 4월 △21.6%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2)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

○ (건설투자)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증가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

· 4월 건설기성액 증가율 전년동월비는 2.5%의 상승세로 전환됨

※ 건설기성 증가율(YoY): '23년 4분기 3.0%, '24년 1분기 6.2%, 2월 2.9%, 3월 △1.7%, 4월 2.5%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함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3년 4분기 △5.3%, '24년 1분기 △4.3%, 2월 △5.2%, 3월 △11.2%, 4월 △0.5%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3년 4분기 4.7%, '24년 1분기 8.4%, 2월 4.2%, 3월 0.7%, 4월 3.4%

-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 선행지표는 4월에 들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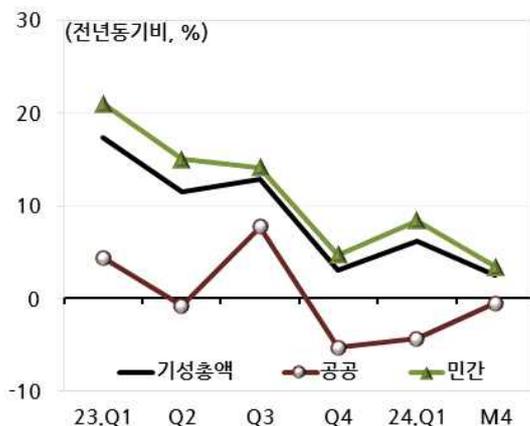
· 4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41.9%로 예상외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임

※ 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22.7%, '24년 1분기 △15.9%, 2월 △4.7%, 3월 10.2%, 4월 41.9%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88.6%, '24년 1분기 58.2%, 2월 59.3%, 3월 79.2%, 4월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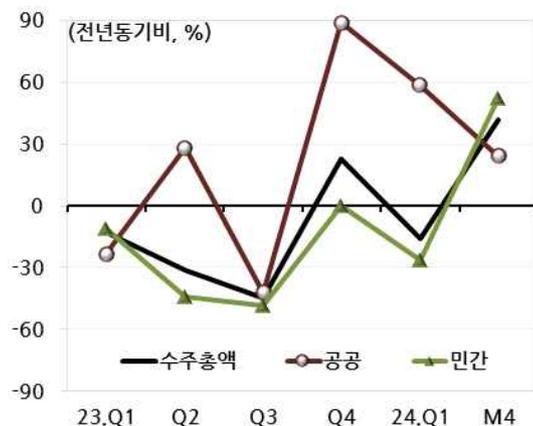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0.1%, '24년 1분기 △26.6%, 2월 △15.5%, 3월 △1.5%, 4월 51.8%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③ 대외 거래

○ (수출입) 수출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은 감소 추세를 지속 중

- 5월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3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5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7%로 '23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5월 25일 누계 기준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8.8% 증가함

※ 수출액 증가율: 1월 18.2%, 2월 4.8%, 3월 3.1%, 4월 13.8%, 5월 11.7%

· 지역별로는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對중국 수출도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1~5월 전년동기간대비 52.7%, 디스플레이 42.6%, 자동차 4.3% 등 대부분 품목이 호조를 보임

- 5월 수입증가율은 농림수산물 등 원자재 및 기초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기록

· 수입은 1~5월의 기간 중 4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보여, 5월 25일 누계 기준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Delta$ 7.4%의 감소율을 기록함

※ 수입액 증가율: 1월  $\Delta$ 7.9%, 2월  $\Delta$ 13.2%, 3월  $\Delta$ 12.4%, 4월 5.4%, 5월  $\Delta$ 2.0%

< 월별 수출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월별 수입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수출입 증가율 차이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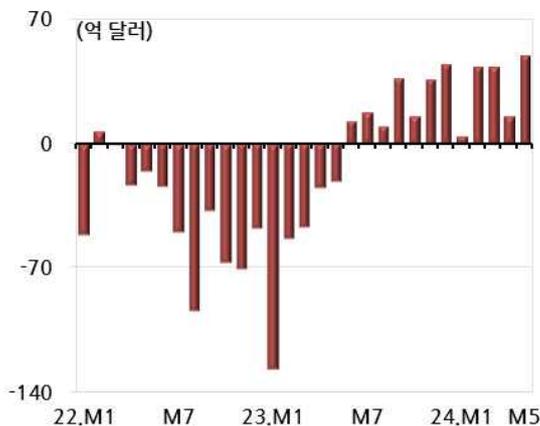
- (무역수지) 해외시장 여건 개선으로 수출의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함

-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부진한 데에 따르는 수입 위축으로 무역수지의 흑자 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가짐
- 무역수지는 '23년 6월 이후 '24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 중이며, 올해 1~5월 누계 흑자 규모는 약 155억 달러 월평균 약 31억 달러임
  - ※ 무역수지: 1월 4.0억 달러, 2월 43.2억 달러, 3월 42.9억 달러, 4월 15.3억 달러, 5월 49.6억 달러

- (경상수지) 서비스수지의 적자에도 무역수지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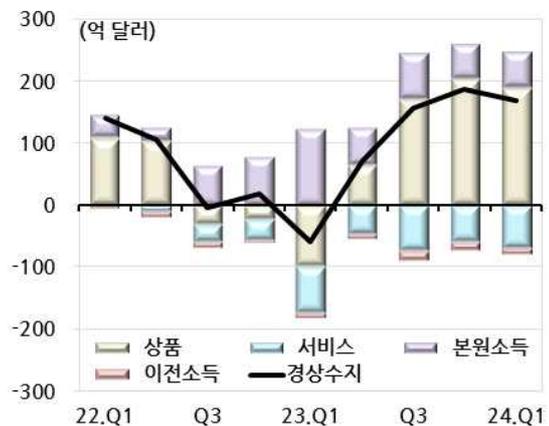
- 경상수지는 작년 2분기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월평균 약 5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 경상수지: '23년 1분기 △59.6억 달러, 2분기 71.1억 달러, 3분기 156.0억 달러, 4분기 187.4억 달러, '24년 1분기 168.4억 달러
- 다만, 서비스수지는 '24년 1분기 현재 서비스수지 적자의 약 57%를 차지하는 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 ※ 서비스수지: '23년 1분기 △75.9억 달러, 2분기 △47.1억 달러, 3분기 △73.3억 달러, 4분기 △60.3억 달러, '24년 1분기 △68.6억 달러

< 월간 무역수지 추이 >



자료: 관세청.

< 분기 경상수지 추이 >



자료: 한국은행.

④ 물가 및 고용

○ (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기후적 요인에 의한 농산물 수급 차질 등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존

- 4월 중 수입물가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생산자물가는 상승률이 증가

· 4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3월  $\Delta 0.5\%$ 의 감소세에서 2.9%의 증가세로 전환됨

※ 수입물가상승률(YoY): 1월 0.7%, 2월  $\Delta 0.2\%$ , 3월  $\Delta 0.5\%$ , 4월 2.9%

· 4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농림수산물, 공산품, 유틸리티, 서비스 등의 품목군 물가가 모두 상승하여 3월 전년동월비 1.5%에서 4월에 1.8%로 높아짐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월 1.3%, 2월 1.4%, 3월 1.5%, 4월 1.8%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과 5월에 들어 2%대로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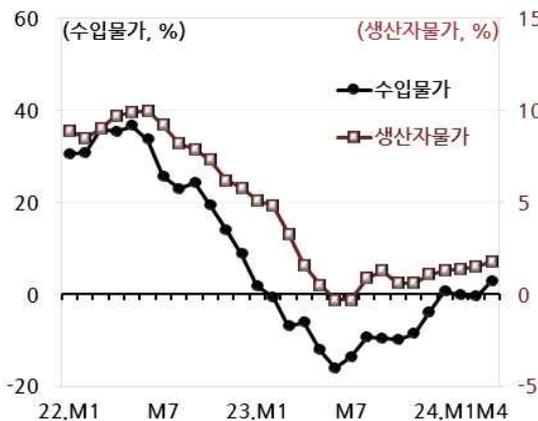
·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전년동월대비 19.0%이나,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의 안정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4월에 이어 2%대를 유지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5월 2.7%

·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5월 근원물가상승률은 2.2%로 4월보다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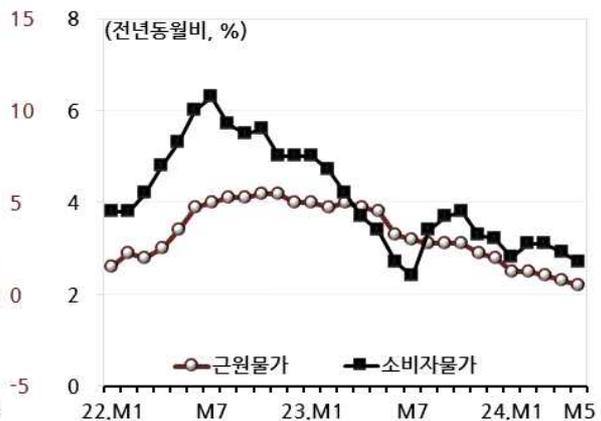
※ 근원물가상승률(YoY): 1월 2.5%, 2월 2.5%, 3월 2.4%, 4월 2.3%, 5월 2.2%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직단념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 시장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승

- 4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구직단념자도 증가 폭이 확대

- 4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 '23년 4월 2.8%보다 악화되었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단념자<sup>3)</sup>도 '23년 4월 32.4만 명에서 '24년 4월 36.9만 명으로 증가함

- 4월 신규취업자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동월비 26.1만 명으로 3월의 17.3만 명보다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확대되는 모습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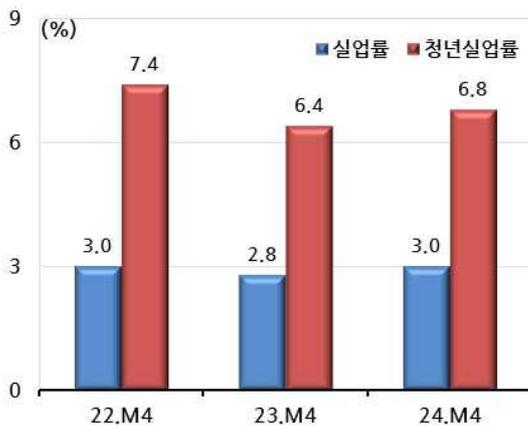
- 4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 전년동월비는 26.1만 명으로 3월 17.3만 명보다 소폭 상승함

※ 취업자 수 증감(YoY): '23년 12월 28.5만 명, '24년 1월 38.0만 명, 2월 32.9만 명, 3월 17.3만 명, 4월 26.1만 명

-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동월비는 제조업 10.0만 명, 건설업 0.5만 명, 서비스업 14.6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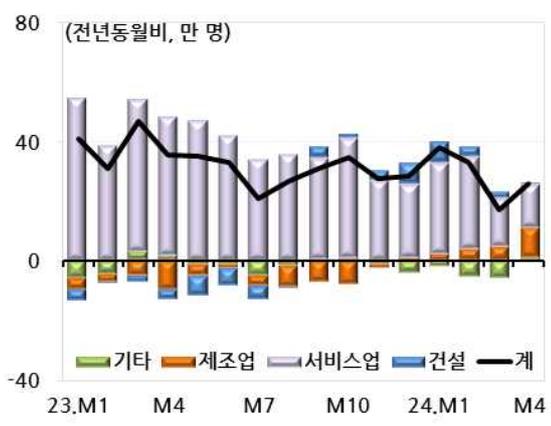
- 다만, 4월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 전년동월비 30.8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축소 15~29세 △8.9만 명 됨

< 4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sup>4)</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3)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중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

4)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 3. 한국 경제 전망

#### ○ 수정 전망의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지난 전망치 2.2% '24년 1월 전망 시점에서 2.7%로 0.5%p 상향조정
  - 상향조정의 근거는 1분기 국민계정상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름
  - 또한,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견조한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해외시장 호황 - 내수시장 불황'형의 무역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경기 전환의 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경기 국면이 회복 기조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의 성장 구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까지는 수출-내수 간 경기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재고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했던 부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의 확대가 예상됨
  - 다만 내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회복 속도의 가속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임
  
- 2024년 한국 경제가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은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바,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발생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다시 2%대 초반의 경제 성장 경로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1.4%	⇒	2.7%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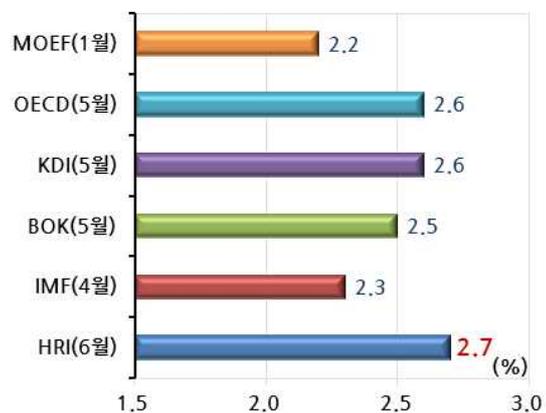
- 한국 경제는 2023년 복합 불황 수출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국면에서 2024년에는 수출 주도의 성장 국면으로 진입함
  - 2024년의 기본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의 주된 힘은 기저효과로 판단됨
    - ※ 196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물렀던 시기는 '80년(△1.6%), '98년(△5.1%), '09년(0.8%), '20년(△0.7%), '23년(1.4%)의 다섯 번에 불과함
  - 특히, 수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강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른 경제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수출에서 내수로의 낙수효과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보다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2% 내외를 넘어서는 2.7%로 예상되며, 기존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월 전망 2.2%에서 0.5%p 상향조정함
  - 2023년의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8%,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6%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4년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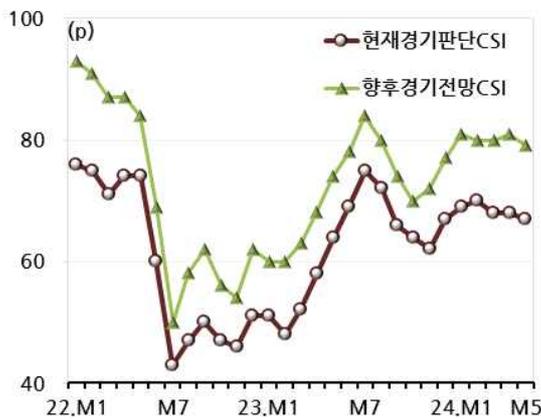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b>1.8%</b> (2023)	⇨	<b>1.7%</b> (202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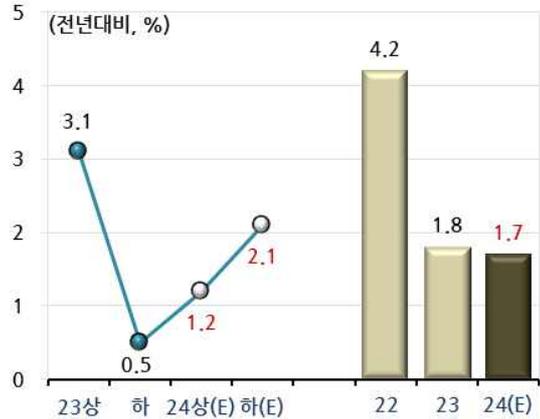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가계의 소비 심리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22년 하반기 이후 개선세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되는 모습
  - 2024년 전반적인 소비 여건을 보면,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실물 경기 상승 등으로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 수준,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시장의 특성으로 실질구매력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하반기에 들어 수출 부문의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고물가·고금리도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24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023년 1.8% 수준과 비슷한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3년의 민간소비 추세상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 하반기 민간소비증가율은 2.1%로 예상됨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b>설비투자증가율</b>	<b>1.1%</b>	⇨	<b>3.8%</b>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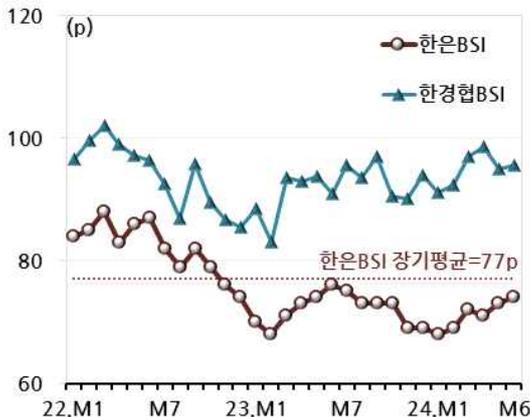
-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 경기 호조에 따른 설비 확충 수요, 중장기 DT 디지털 전환 및 GT 그린 전환 투자 수요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업 심리의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자본 조달 비용의 급증, 자본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여력도 취약한 상황임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도 최근 들어 모두 하락하면서 설비투자의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한편,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해야 하는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시장 불확실성 미국 경기 하강, 중국 회복 지연 등의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투자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DT AI, 데이터센터, GT 신재생에너지인프라 등의 신산업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24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023년 1.1%보다 높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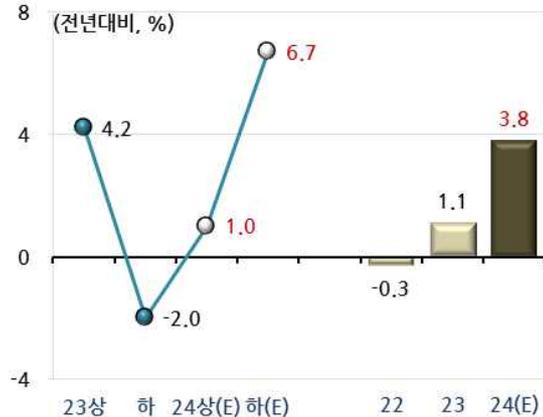
- 2023년의 설비투자 추세상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 하반기에는 6.7%로 예상됨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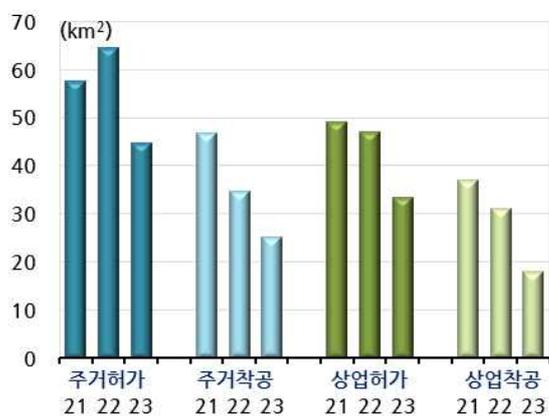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b>건설투자증가율</b>	<b>1.5%</b>	⇨	<b>0.1%</b>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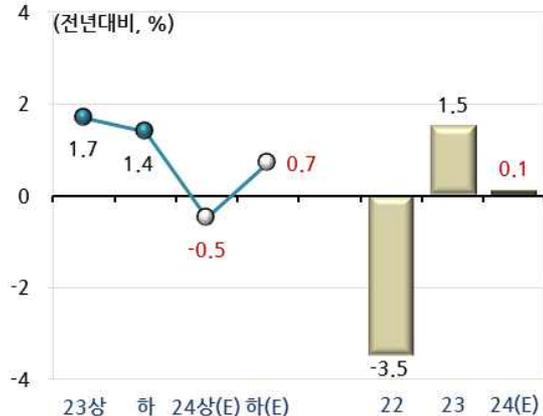
- 장기화된 건설수주 침체가 건설기성 국민계정의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투자가 미약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을 기대
  - 부문별로 토목 SOC 분야의 경우 2024년 정부 예산에서의 재정투자 규모가 26.4조 원으로 2023년 25.0조 원 대비 5.8% 증가하였기에 일정 수준의 업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23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건설투자의 75%를 차지하는 건축 건물 건설 분야의 경우,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비용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역설적으로 공사비 및 금융조달비용 급증에 따른 착공 급감으로, 누적된 대기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미약하나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2024년 건설투자증가율은 2023년 1.5%보다 낮은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상반기 건설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5%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함

< 건축부문 허가 및 착공 면적 추이 >



자료: 국토교통부.

< 건설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③ 대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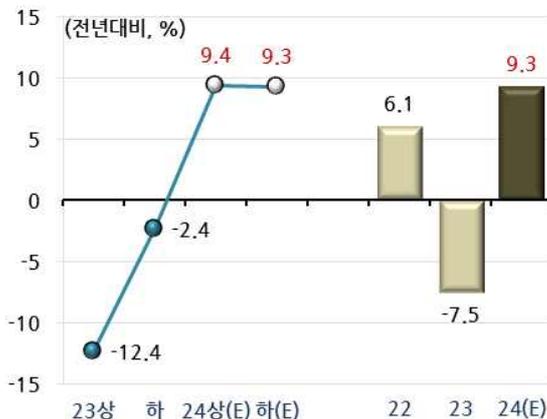
<b>수출증가율</b>	<b>△7.5%</b>	⇨	<b>9.3%</b>
	(2023)		(2024)

- 수출증가율은 2023년 △7.5%에서 2024년 9.3%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전년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 선도 품목인 반도체와 다른 품목 간의 수출 경기 회복에 시차가 존재하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9.4%, 하반기 9.3%로 평탄한 흐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수출 경기의 전반적인 호조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대외 여건 전개 방향성에 따라 회복력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b>수입증가율</b>	<b>△12.1%</b>	⇨	<b>0.8%</b>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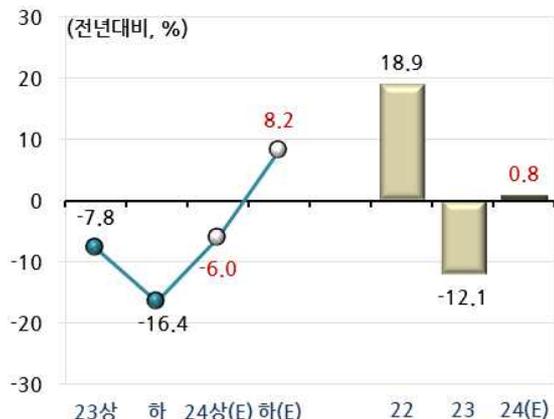
- 수입증가율은 2023년 △12.1%에서 2024년 0.8%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6.0%, 하반기 8.2%로 예상됨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하반기 원자재 가격이 재상승할 경우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수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 수입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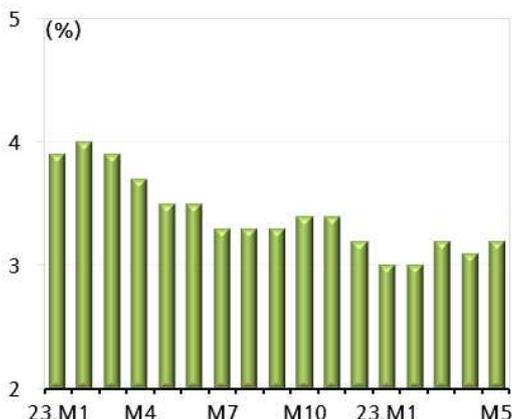


④ 물가 및 고용

<b>소비자물가상승률</b>	<b>3.6%</b>	⇨	<b>2.7%</b>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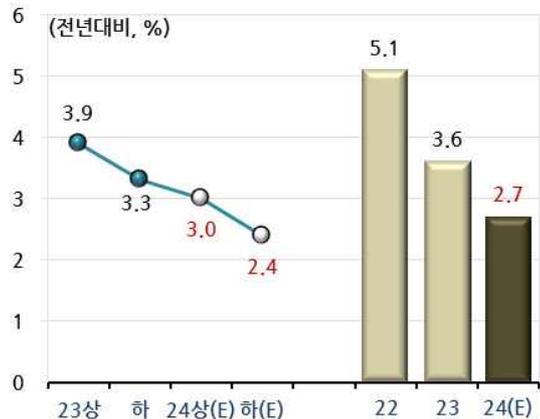
- 상반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들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특별한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가 기대됨
  - 또한, 수입물가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망도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술적으로 물가 수준에 대한 기저효과 '23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고 하저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고물가가 빠르게 잡히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2.7%로 낮아질 전망
  - 2024년 상반기에는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2%대 전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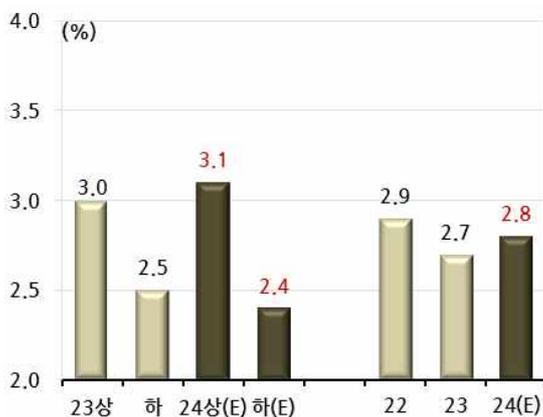
**실업률** 2.7% ⇨ 2.8%  
 (2023) (2024)

- 실업률은 2023년 2.7%에서 2024년 2.8%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고용지표의 계절적 특성의 영향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3.1%가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에도 고용 지표의 경기 후행성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실물 경기의 회복 국면 속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위축을 보전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 군에 진입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취업자수증감** 33만명 ⇨ 23만명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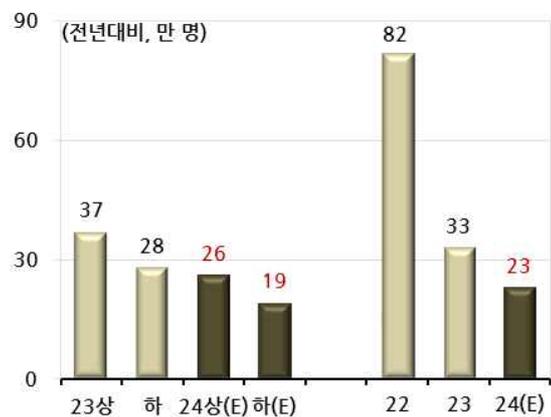
- 신규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26만 명, 하반기에는 19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취업자수의 감소는 실물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산업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어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임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 취업자수 증감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 &lt;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4년 6월) &gt;

구 분		2022	2023			2024(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7	1.0	1.7	1.4	2.8	2.6	2.7
	민간소비 (%)	4.2	3.1	0.5	1.8	1.2	2.1	1.7
	건설투자 (%)	△3.5	1.7	1.4	1.5	△0.5	0.7	0.1
	설비투자 (%)	△0.3	4.2	△2.0	1.1	1.0	6.7	3.8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58	11	343	355	310	300	610
	무역수지 (억 달러)	△478	△263	159	△103	226	208	434
	수출증가율 (%)	6.1	△12.4	△2.4	△7.5	9.4	9.3	9.3
	수입증가율 (%)	18.9	△7.8	△16.4	△12.1	△6.0	8.2	0.8
소비자물가상승률 (%)		5.1	3.9	3.3	3.6	3.0	2.4	2.7
실업률 (%)		2.9	3.0	2.5	2.7	3.1	2.4	2.8
취업자수 증감 (만 명)		82	37	28	33	26	19	23

#### 4. 시사점

첫째, 피벗 pivot, 금리 인하 이전의 기간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활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 (경제정책의 국민적 지지 확보) 정부 경제정책의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지향하는 목표점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간주체의 경제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경제정책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정책의 내용보다 정부 정책의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일 경우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해석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중요한 정책일수록 정책의 배경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민간주체의 경제심리와 직결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격 변수의 변동성 완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 변수들은 실물 경제적 측면에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력에 우회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경제 내 소비나 투자 동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내수 경기의 회복이 과도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출입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 자본의 국내 금융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충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최근의 사례에서와 같이 글로벌 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국내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무 및 금융 자산 투자 건전성 감독에 주력해야 할 것임

둘째,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 (유연한 통화정책) 최근 각국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 FED의 피벗 이전에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기조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고금리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에도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방법의 통화정책인 ‘포워드가이던스’를 시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 FED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재를 비롯한 FOMC 위원들이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시장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서는 향후 금리 수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한편 불가피하게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 경우, 시장의 고금리가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시중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에 대한 타당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금융감독기관과 더불어 PF 시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재정 집행의 효과 극대화) 제한된 재정 여력 하에서 재정의 적시성 適時性, proper timing 확보 및 집중도 集束度, focusing 제고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

절 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재정 당국의 집행률 제고, 통화 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미시정책이 동원되어야 함
  - 나아가 재정 지출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민간 부문으로 그 긍정적 효과가 파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프로세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사업 조기 발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 교육, 보육 분야 중에서 민간 소비 구매력 확충과 직결된 항목의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 제고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 부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회복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재정 소요분의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정확한 ‘재원 수급’ 시나리오가 담겨야 할 것임

셋째,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 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 (민간 소비 여력 확충) 미시적 수단 중심의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현재 일시적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면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운용 등의 정부의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유통 과점상 불필요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장 가격이 실수요와 실공급에만 좌우될 수 있는 완전경쟁시장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서민 가구에 대한 정책모기지 확대, 직접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경기 회복 체감 속도가 미약한 취약 계층의 소비 여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가계부채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독려와 인센티브

제고 노력을 지속하여, 내수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할 것임

- (대안 소비 시장 확대) 시장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전의 취약한 시장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에 기인한 바가 큼
  - 우리나라도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관광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나아가,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도 급증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국민 정서에 맞는 국내 관광지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흡수해야 할 것임
  - 한편, 성장 주력 산업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 마련도 필요함

넷째,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 (투자 활성화 노력 경주)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
  - 지속적인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노사 관계 안정 등의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도로 체증, 의료 환경, 한국 고유의 임대차 제도 등의 인프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국내 기업의 유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킬러 규제 해소 및 글로벌 트렌드인 보조금 확대 등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차세대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신재생·원자력에너지 등의 글로벌 유망 신기술·신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클러스터 조성의 노력도 필요함

- (건설업 경기 급랭 방지)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최근 고금리에 따른 시장 수요 미약, 건설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전세가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규제 완화책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한편, 부동산 버블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설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시장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토목 부문에서 SOC 예산의 조기집행률 제고, 민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산업 경기의 급랭 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특히, PF 시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합리적 수준의 개입과 관리를 통해 건설 경기가 질서 있는 연착륙 국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섯째,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 (수출 시장 외연 확장) 우리 주력 수출시장인 G2를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함

- 향후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역의 활력이 충분치 않아 수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고유가로 구매력이 높아진 MENA와 비교적 경기 회복세가 빠른 인도 및 ASEAN 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편,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K-푸드, K-뷰티, K-모빌리티, K-가전 등 한류 붐이 우리 소비재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나아가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증진·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증 저금리 신용공여,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에 주력해야 함
-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 경제 환경 리스크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 하반기 이후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들어섬에 따라 미 통상 당국이 자국 기업 보호와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민감해지면서, 통상 정책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동원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포퓰리즘 확산이 가져올 시장의 규제 강도 변화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 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이 고려된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조달에 대한 민·관의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